

# 위암 로봇수술 원탁회의 결과문

## 『로봇수술의 명암과 비전』

### I. 본회의 결과

위암환자에 대하여 로봇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비교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의 연구결과 역시 로봇수술과 복강경 수술 비교 시 사망률, 합병증, 재원일수는 차이가 없었고, 다만 비용 측면에서는 로봇수술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문헌수가 적고, 장기간의 종양학적 결과가 확보되지 않아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현재 로봇 수술 장비는 모두 해외의 한 의료기 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산 로봇수술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보건산업육성과 기술경쟁력 향상 등이 현재 정부 기조이고, 최소 침습성 수술이라는 장점과 외과의사가 부족한 의료계 현실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로봇수술은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수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와 로봇개발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규모 있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로봇수술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아직 수행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등 관련 평가를 더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후발주자인 국내 로봇 개발 회사가 기 개발된 장비와 본질적 동등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로봇수술에 대해 적정수준의 수가를 통한 보상과 급여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국내 의료기기 개발사: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국산 로봇을 개발하기 위하여 안정적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 후속조치

본 원탁회의는 정책토론회의 기능을 겸하였으므로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고, 발표자와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으로 게재하기로 하였다.